

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

VIP 리포트

- 경제적 행복 추이와 시사점
- 노후준비와 자녀교육이 관건

발행인 : 하 태 형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 원, 백흥기
발행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Homepage. <http://www.hri.co.kr>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-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.
-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(02-2072-6224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경제적 행복 추이와 시사점 - 노후준비와 자녀교육이 관건

Executive Summary

1.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	1
2. 경제적 행복의 몇 가지 특징	3
3. 시사점	7
<별첨>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개요 및 소개	8
【HRI 경제 통계】	13

○ '경제적 행복'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'노후준비'와 '자녀교육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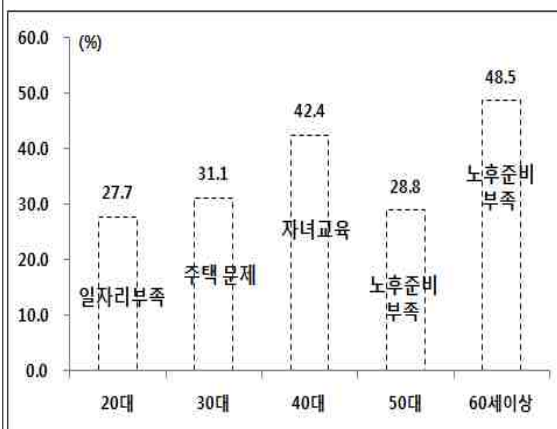
- '경제적 행복'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'노후준비 부족'(24.8%)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, '자녀교육' 22.6%, '주택문제' 16.6%, '일자리 부족' 16.3% 등의 순이었음
- 나이(연령대)에 따라 응답이 달랐는데, 20대는 '일자리 부족', 30대는 '주택문제', 40대는 '자녀 교육', 50대와 60세 이상은 '노후준비 부족'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○ 2014년 12월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'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대졸 이혼 남'이었으며,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'전문직에 종사하는 20대 미혼 여성'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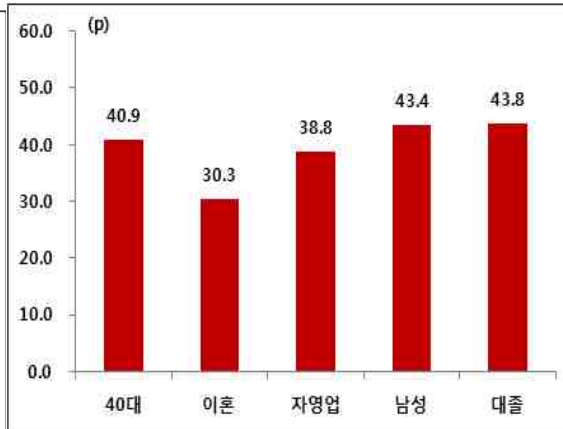
- 20대 젊은 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높고, 40대가 낮아서 'U자 모양'을 그리고 있는데,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조사 가운데 처음 나타남
- 제6회부터 제15회까지의 결과를 평균해보면 '울산'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으며, 광역경제권별로는 대구-경북을 포함하는 '대경권'이 가장 높았음
- 경제적 행복지수의 6개 구성 항목 가운데 '경제적 평등' 27.6점, '경제적 불안' 31.1점으로 가장 저조하여 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, 미래 전망과 관련된 '경제적 발전' 항목 역시 45.9점으로 50점에 미달하고 있음
- 제15회 경제적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4.5점으로 여전히 50점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, 전기(2014년 6월)대비 0.9p 상승, 전년 동기(2013년 12월)대비 3.9p 상승하였고, 지난 MB정부 5년에 비해서도 상승 추세를 지속

○ 노후준비와 자녀교육, 고용의 안정성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줌과 아울러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

<연령별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>



<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그룹>



1. 경제적 행복의 장애요인 : ‘노후준비 부족’과 ‘자녀 교육’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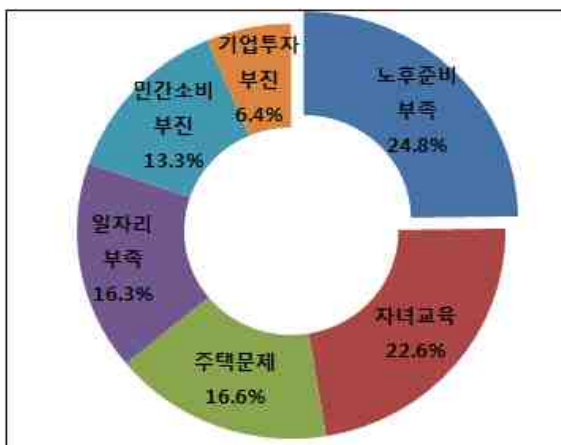
○ ‘경제적 행복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‘노후준비 부족’(24.8%)과 ‘자녀교육’(22.6%)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나이가 달라짐에 따라 경제적 행복의 영향 요인도 ‘일자리↔주택↔자녀교육↔노후준비’로 달라짐

- ‘당신의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?’라는 질문에 대해 ‘노후준비 부족’ 24.8%, ‘자녀교육’ 22.6%, ‘주택문제’ 16.6%, ‘일자리 부족’ 16.3%, ‘민간의 소비 부진’ 13.3%, ‘기업의 투자 부진’ 6.4%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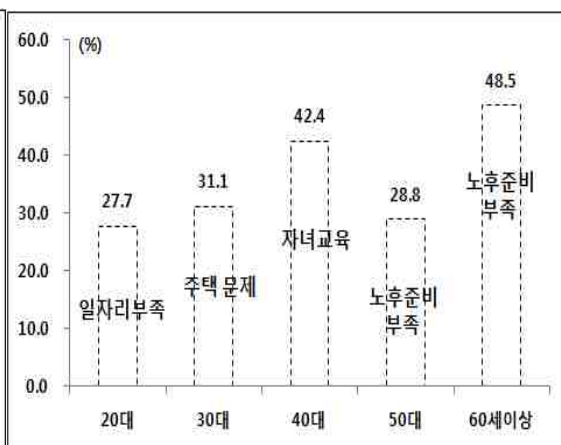
- 나이(연령대)에 따라 결과도 달라졌는데, 20대는 ‘일자리 부족’, 40대는 ‘자녀 교육’, 60세 이상은 ‘노후준비 부족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- 20대는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로서 ‘일자리 부족’(27.7%)과 ‘주택문제’(25.7%)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으며, 이어서 ‘노후준비 부족’(15.8%) 등의 순이었음
- 30대는 결혼하고 가족을 꾸려가는 연령대이므로 ‘주택 문제’(31.1%)에 가장 민감했으며, 다음은 ‘노후준비 부족’(18.9%), ‘자녀 교육’(17.5%)의 순이었음
- 40대는 ‘자녀 교육’(42.4%)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, 50대는 ‘노후준비 부족’(28.8%)과 ‘자녀 교육’(20.7%)이 비슷했으며, 60세 이상은 ‘노후준비 부족’(48.5%)이 압도적이었음

<경제적 행복의 장애물>



<연령별 ‘경제적 행복의 장애물’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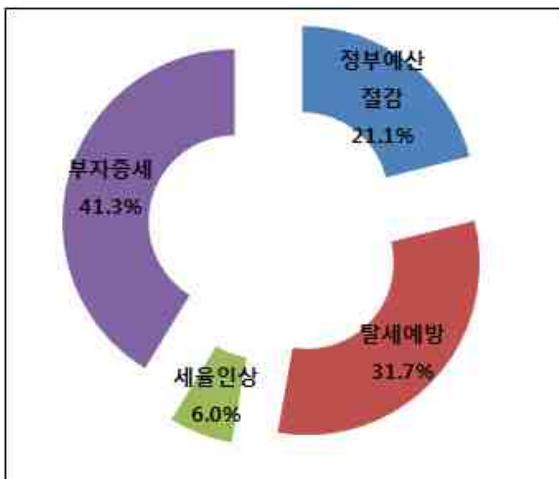
1) ‘경제적 행복’에 관한 조사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실시되며, 제15회 조사는 2014년12월11일부터 19일까지,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812명을 대상으로, 전화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었으며, 오차범위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4%p.

- 결혼 여부에 따라 경제적 행복의 영향 요인이 크게 달랐으며,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'자녀 교육'의 응답률이 높아짐
 - '미혼'의 경우에는 '주택문제'(30.2%)와 '일자리 부족'(24.9%)을 많이 선택했고, '기혼'의 경우에는 '자녀 교육'(27.9%)과 '노후준비 부족'(26.5%)을 많이 선택
 - 소득·학력이 올라갈수록 '자녀 교육'이 경제적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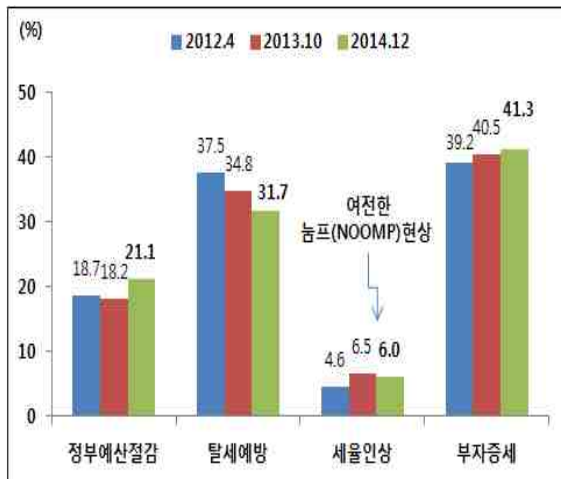
○ 경제적 행복을 뒷받침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'부자 증세'(41.3%)와 '탈세 예방'(31.7%), '정부예산 절감'(21.1%)의 순이었고,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는 '세율 인상'(6.0%)은 응답률이 매우 낮음

- 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은 고소득층, 정부 등이 먼저 노력하고, 나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책임(세율 인상)은 가장 나중에 선택하는 늪프(NOOMP(Not Out Of My Pocket)현상²⁾이 여전히 관찰됨
 - '부자 증세'는 2012년 39.2%, 2013년 40.5%, 2014년 41.3%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, '탈세 예방'은 각각 37.5%, 34.8%, 31.7%로 차츰 낮아지고 있음
 - '정부예산 절감'은 21.1%로서 2012년 18.7%, 2013년 18.2%에 비해 증가함
 - '세율 인상'³⁾은 6.0%로서 2012년 4.6%에 비해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

<복지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>



<연도별 복지재원 조달 방안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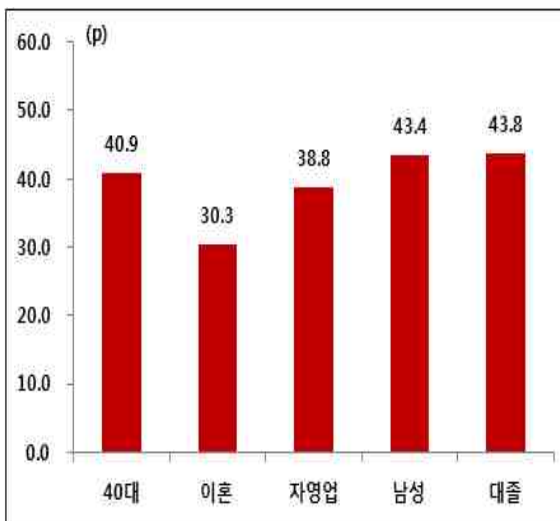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 / 주 : 3회의 조사 시점(2012.4, 2013.10, 2014.12)별로 비교함.

2) 현대경제연구원, '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늪프(NOOMP) 현상', 경제주평 12-12(Vol. 483), 2012.4.2
 3) 이러한 결과는, 세율이 동일한(10%)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('세율 인상')보다는 소득세의 누진구조 강화('부자 증세')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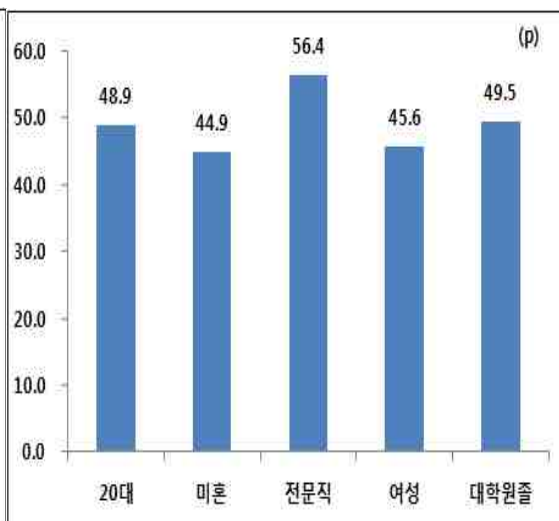
2. 경제적 행복⁴⁾의 몇 가지 특징

- (불행한 그룹 對 행복한 그룹) 2014년 12월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'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대졸 이혼남'이었으며,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'전문직에 종사하는 20대 미혼 여성'이었음
- 연령별로 보면, 20대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고,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남
 - 지금까지는 '60세 이상 고령층'의 경제적 행복감이 매우 낮았으나, 제15회(2014년 12월) 조사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지급(2014년 7월) 등의 영향으로 고령층의 행복감이 크게 증가했으며, 반대로 40대는 하락하여 가장 낮아짐
- 학력별로 보면, 대학원졸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, 대졸이 가장 낮게 나타남
 - 지금까지는 학력이 낮(높)을수록 행복감이 낮(높)았으나, 제15회(2014년 12월)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졸(43.8)이 고졸(45.0)보다 더 낮게 나타남
- 기타 다른 인구특성별 추세는 과거와 비슷하게 나타남
 - 결혼여부별로 보면 미혼>기혼>이혼, 성별로는 여성>남성, 직업별로는 전문직>공무원>직장인>자영업의 추세가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

<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그룹>



<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룹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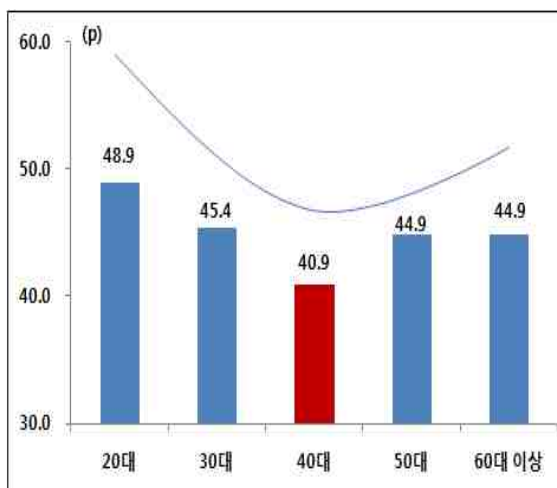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주 : 제15회(2014년 12월) 설문조사 결과.

4) 경제적 행복지수의 조사 개요, 정의, 구성요소, 계산 방식 등 자세한 설명은 별첨 자료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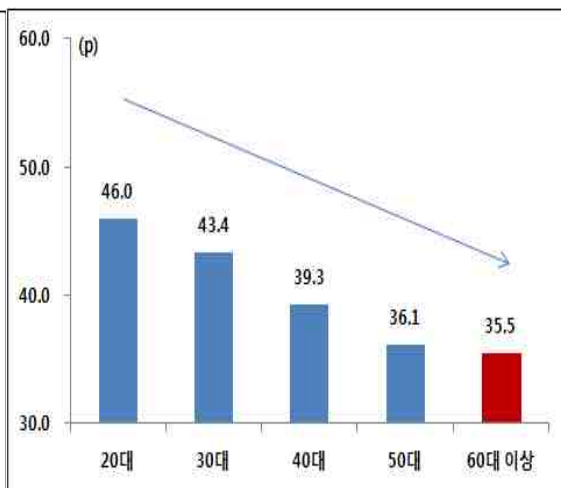
- (연령별) 20대 젊은 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높고, 40대가 낮아서 'U자 모양'을 그리고 있는데,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조사 가운데 처음 나타남
 -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8.2p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50대의 경우도 전기대비 4.7p 상승하는 등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향상됨
 - 60세 이상의 경제적 행복감이 이번(2014년 12월)에 크게 올라간 이유는 2014년 7월부터 확대 지급된 기초연금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
 - 연금제도가 정착되어 노후 걱정이 없는 선진국의 60세 이상 고령층은 20대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행복감이 상당히 높아 'U자 모양'을 그리고 있음
 - 2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8.9로 가장 높았고 전기대비 1.1p 상승한 반면, 4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40.9로 가장 낮았고 전기대비 -5.3p 하락함
 -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로 전기대비 1.1p 상승한 48.9를 기록했으며, 30대는 3.4p 하락했으나 45.4를 기록하여 전체 2위를 기록함
 - 40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5.3p 급락하면서 전체 순위 꼴찌를 기록함
 - 1회~14회 평균 : 20대(46.0) > 30대(43.4) > 40대(39.3) > 50대(36.1) > 60세이상(35.5)

< 연령별 경제적 행복 (제15회)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주 : 제15회(2014년 12월) 조사 결과.

<연령별 경제적 행복 (1회~14회 평균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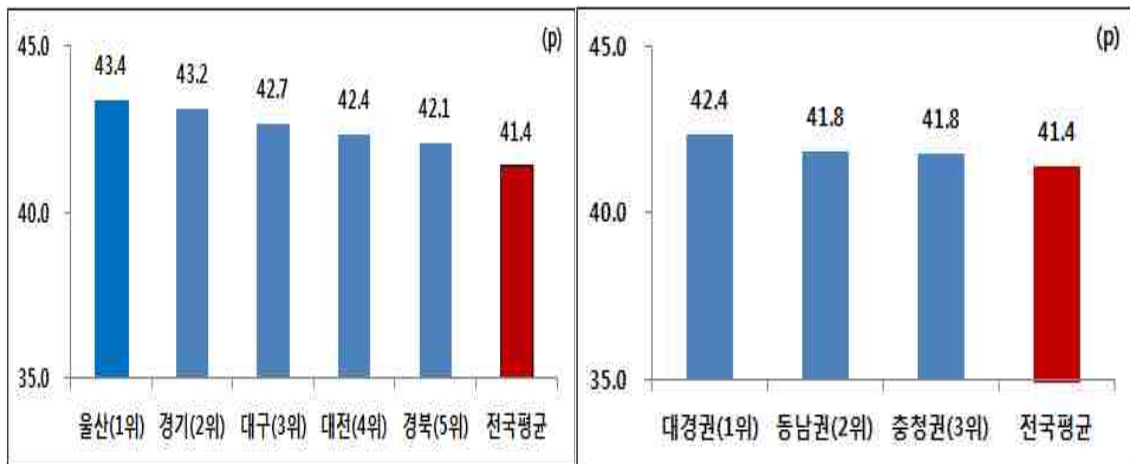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주 : 제1회부터 제14회까지의 평균을 구함.

5) 서구의 경우 Oswald(1997), Blanchflower & Oswald(2000), Carol Graham(2009), 브루노 프라이&알로이스터처(2008), 요하네스 발라허(2011) 등에 따르면, 건강과 국가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이후 연령과 행복간의 U자형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으며, 나이가 들수록 상황에의 적응 능력이 커지고, 삶을 더욱 충만하게 즐기게 되기 때문에, 고령자의 행복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고 해석.

- (지역별) 16개 시도별로 제6회부터 제15회까지의 결과를 평균해보면 1인당 소득(GRDP)이 가장 높은 '울산'이 경제적 행복지수도 가장 높았으며, 광역경제권⁶⁾별로는 대구-경북을 포함하는 '대경권'이 가장 높게 나타남
- 16개 시도별로 제6회(2010년7월)부터 제15회(2014년12월)까지 모두 10회의 조사 결과를 평균해본 결과, 울산시, 경기도, 대구시, 대전시, 경상북도 등 5개 시도가 경제적 행복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
 - 5+2 광역경제권별로 비교해본 결과, 대경권(대구-경북), 동남권(부산-울산-경남), 충청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편임

< 지역별 경제적 행복 (6회~15회 평균) > < 권역별 경제적 행복 (6회~15회 평균)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주 : 제6회(2010.7)부터 제15회(2014.12)까지 평균.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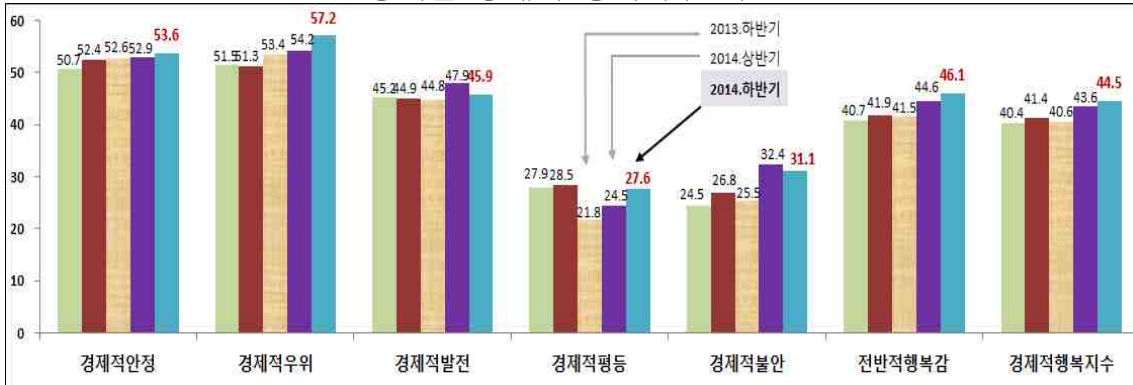
주 : 제6회(2010.7)부터 제15회(2014.12)까지 평균.

- (구성 항목별) 경제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'경제적 평등'(27.6 점)과 '경제적 불안'(31.1점)이 가장 저조하여 전체 지수 값을 낮추고 있으며, 미래와 관련된 '경제적 발전' 항목 역시 45.9점으로 50점에 미달함
- '경제적 발전'과 '경제적 불안' 등 향후 전망과 관련된 2개 항목은 전기대비 하락했고, '경제적 안정'과 '전반적 행복감' 2개 항목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며, '경제적 우위'와 '경제적 평등' 2개 항목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함

6) 16개 시도를 '5+2' 체제로 묶어 놓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, 충청권(대전, 충남, 충북), 호남권(광주, 전남, 전북), 대경권(대구, 경북), 동남권(부산, 울산, 경남)과 강원도, 제주도(5권, 2도)로 구성됨.

- 일자리,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은 0.7p, 전반적 행복감은 1.5p 상승에 그쳤지만, 경제적 우위는 3.0p, 경제적 평등은 3.1p 상승하는 등 비교적 크게 개선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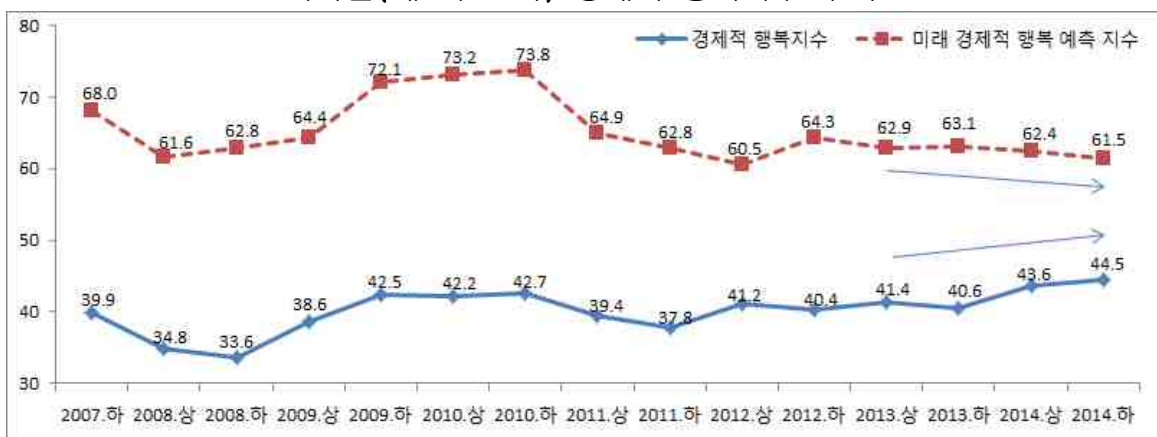
<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 비교 >



- (회차별) 제15회 경제적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4.5점으로 여전히 50점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, 전기(2014년 6월)대비 0.9p 상승, 전년 동기(2013년 12월)대비 3.9p 상승하였고, 지난 MB정부 5년에 비해서도 상승 추세를 지속

- 경제적 행복지수의 상승 추세와는 달리 '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'는 최근 4회 연속 하락 추세에 있어서,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을 알 수 있음
- 현 정부 2년간(12회~15회) 경제적 행복지수 평균값은 42.5점으로, 지난 MB정부 5년간(2회~11회) 평균값 39.3점에 비하면 3.2p 높게 나타남

< 회차별(제1회~15회)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

7)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는 100점 만점으로, 50점을 넘으면 낙관적 예측이 비관적 예측보다 많음을 의미.

3. 시사점

- ‘경제적 불안’과 ‘경제적 평등’ 항목이 매우 저조함을 감안한다면, 노후준비와 자녀교육,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,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
 - ‘경제적 불안감’은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두드러지면서, 전체적으로 ‘경제적 행복지수’ 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, 고용의 안정성과 노후 준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함
 - 미래 예측지수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,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가시화시키기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필요함
-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큰 폭으로 향상되어 ‘기초연금 확대 지급’ 등의 정책적 효과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지만, 여전히 ‘노후준비 부족’이 경제적 행복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음
 -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과 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지원 등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함
-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하고, 특히 ‘경제적 불안감’과 ‘경제적 평등감’이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
 - 대졸이상 고학력층과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도 ‘경제적 불안감’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, 고용 안정성의 제고와 소득 격차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

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정책연구실장 (031-288-7950, dykim@hri.co.kr)
 홍유립 연구위원 (031-288-7987, ylhong@hri.co.kr)

<별첨 1>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

1. 조사의 개요

- 조사 기간 : 2014년 12월 11일 ~ 2014년 12월 19일(9일간)
- 조사 방식 : 전화설문 조사
- 조사 대상 :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812명
(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)
- 오차 범위 : 95% 신뢰 수준에서 ±3.4%

○ 응답자 특성

구분	성별		연령별					결혼유무		
	남	여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기혼	미혼	이혼/사별
명	398	414	101	208	206	189	108	613	190	8
%	49.0	51.0	12.4	25.6	25.4	23.3	13.3	75.6	23.4	1.0

구분	직업별						소득수준별					
	직장인	자영업	주부	전문직	공무원	무직/기타	2천만원 미만	2천4천만원 미만	4천6천만원 미만	6천8천만원 미만	8천1억원 미만	1억원 이상
명	378	154	114	9	94	63	228	327	168	56	17	14
%	46.6	19.0	14.0	1.1	11.6	7.8	28.1	40.4	20.7	6.9	2.1	1.7

구분	자산규모별						학력별			
	1억 미만	1억3억	3억5억	5억10억	10-20억	20억 이상	중졸	고졸	대졸	대학원 이상
명	307	300	115	62	12	4	46	173	523	62
%	38.4	37.5	14.4	7.8	1.5	0.5	5.7	21.5	65.0	7.7

구분	지역별															
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남	경북	제주
명	51	50	51	50	50	51	50	50	51	53	52	51	50	51	50	51
%	6.3	6.2	6.3	6.2	6.2	6.3	6.2	6.2	6.3	6.5	6.4	6.3	6.2	6.3	6.2	6.3

<별첨 2> 경제적 행복지수 소개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

-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, 의식,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

·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(Economic Happiness Index)로 명명

○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

-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, 우리나라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·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

-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

-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,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,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

<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 >

		이론 및 근거	내용
①	경제적 안정 지수	Maslow(1934) Need theory	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
②	경제적 우위 지수	Frank Robert(1986)	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
③	경제적 발전 지수	Daniel Kahneman(1979) Prospect theory	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
④	경제적 평등 지수	Veenhoven(2006) Inequality-Adjusted Happiness	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
⑤	경제적 불안 지수	Okun(1976) Misery Index	물가,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

- 경제적 행복지수(EHI)는 '5개 하위지수' 와 '전반적 행복감'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
-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, 중립 50점,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
- 경제적 불안은 다른 4개 하위지수와 반대로 계산.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
-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,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, 보통이다 50점,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
-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, 중간값 50점임

$$EHI = \frac{\frac{\textcircled{1} + \textcircled{2} + \textcircled{3} + \textcircled{4} + \textcircled{5}}{5} + \textcircled{6}}{2}$$

○ (경제적 행복 예측)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,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

-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
- ‘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’ 에 대하여 질문하여, ‘그렇다’와 ‘아니다’의 비율의 차(가중치 0.5 적용)에 50을 더하여, 5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50 미만이면 그 반대임 (BSI 산출방식과 동일)
- 예로써 ‘예’가 60% 이고 ‘아니오’가 40% 이면 $60 - 40 = 20$ 이 나오고 여기에 가중치0.5를 곱하고, 50을 더하면 ‘예측지수’는 60이 지수가 됨
-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, 중간값 50점임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

구분		질문	답변
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	① 경제적 안정	나(또는 귀댁의 가장)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.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.	(1)그렇다 (2)반반이다 (3)아니다
	② 경제적 우위	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.	
	③ 경제적 발전	나의 소득,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.	
	④ 경제적 평등	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.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.	
	⑤ 경제적 불안	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.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.	
⑥ 전반적 행복감	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.		
경제적 행복 예측	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.	(1)예 (2)아니오	

HRI 경제 통계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

<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>

구 분		2013 연간	2014				2015 연간(E)	
			1/4	2/4	3/4	연간(E)		
국민계정	경제성장률(%)	3.0	3.9	3.5	3.2	3.6	3.6	
	민간소비(%)	2.0	2.5	1.5	1.5	2.3	2.8	
	건설투자(%)	6.7	4.3	0.2	2.6	1.9	3.0	
	설비투자(%)	-1.5	7.3	7.7	4.3	5.7	5.1	
대외거래	경상수지(억 \$)	799	151	241	227	800	680	
	통관기준	무역수지(억 \$)	441	52	149	91	433	426
		수출(억 \$)	5,596	1,376	1,457	1,421	5,770	6,023
		증감률(%)	(2.1)	(1.7)	(3.2)	(3.9)	(3.1)	(4.4)
		수입(억 \$)	5,156	1,323	1,308	1,331	5,336	5,597
증감률(%)	(-0.8)	(2.0)	(3.2)	(5.6)	(3.5)	(4.9)		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	1.3	1.1	1.6	1.4	1.7	1.9	
실업률(%)		3.1	4.0	3.7	3.3	3.6	3.4	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